

[종합]

Beijing 2008 결산

(1) 올림픽 성공, 中 르네상스 시작

30년 개혁·개방 성인식... '中華 부흥' 서곡

84개국 정상 참석... '대국 외교' 힘 실감
"빛장 건 그들만의 잔치" 부정적 시각도

"결국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天下無不散之筵席)."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해 7년간 준비해온 베이징올림픽이 지난 8일 개막한 지 17일만인 24일 막을 내리자 한 고위 당국자가 이같이 읊조리듯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의 말 속에는 허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과정에서 온갖 사소한 것을 겪은 올림픽이 일단 자신들의 소망대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하면 베이징올림픽은 성공적이었고 중국은 이로써 30년 개혁개방의 성

인식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평가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쿠다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총리 등 세계 84개국의 정상이 참석, 5천만 중국 문화가 집약된 공연을 즐겼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정상이 한꺼번에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중국의 대국 외교의 힘을 실감케 했다. 올림픽에 아무도 그리움을 드려올 것으로 크게 우려됐던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 분리주의자들의 역내 테러, 외국인 의 티베트(시창·西藏)자치구의 분리 요구 시위 등이 사소한 규모로 발생하기를 했지

만 올림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차단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날씨도 베이징 당국을 도왔다. 베이징 당국은 개막식 날비를 막기 위해 역(逆)공강우 기술을 한번 사용했을 뿐 날씨에 '장난'을 치지 않았는데도 올림픽 기간 베이징의 날씨와 공기는 경기를 치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난 1997년 7월3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아 '서세동점(西勢東占)' 시대에 종언을 고한데 이어 11년만에 세계에 위대한 중화 부흥의 서곡을 올린 셈이다. '중국관 르네상스'를 예고한 이 '세계에 고함'에는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경제적 부와 하드웨어 기술 이외에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다. 이른바 중국 고유의 것을 표준으로 내세우자는 '차이나 스탠

더드'의 등장이다. 중국이 개막식 국가별 입장 순서를 영이 알파벳이 아닌 중국어 간체자 획순으로 한 것이나 올림픽 기간 선보인 제3세대(3G) 이동통신의 기술표준으로 CDMA 2000이나 WCDMA 대신 자체 TD-SCDMA를 채택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성인식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한 성인이 되기에는 미숙한 점을 많이 노출했다는 평이 함께 나오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빛장을 타아건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명박을 요구한 한 서방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고 황금시대를 재현하려면 개방성과 관용, 공정성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 베이징올림픽 폐막일인 24일 텐안먼 광장~궈자티위창 구간에서 열린 남자마라톤에서 선두그룹이 텐안먼 광장을 지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중화 르네상스'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광주시·전남도 공동추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력거래소와 손잡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공동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추진단'을 최근 구성하

고 거래소를 2013년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는 지난 달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민선4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시·도 공동 유치 3개 대형 국책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현안으로 등장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黨政, 상수도 민간위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물값 큰폭 인상"... 서민들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된 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돗물 가격인상이 불가피,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광주·전남지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 공사나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수돗물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수도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을 내달 중순 입법예고기로 했다.

당 정책조정위 핵심관계자는 "수도사업의 소유권은 기존방식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시군구 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수도사업 구조개편안에 따라 민간기업이 경영을 맡게 되면,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특성상 상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평균 상수도 생산원가는 1t당 952.4원인 반면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실제 수도요금은 1t당 708원으로, 자치단체들이 1t당 250원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하루평균 상수도 공급량이 47만 2천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 자치단체

들은 하루평균 1억1천536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역시 1t당 생산원가 602원에 크게 못 미치는 528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돗물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일선 자치단체들도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민간기업이 상수도 관리를 위탁,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자본소유를 허용한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 예고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하루 사용요금 14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과담이 떠돌아 입법예고를 연기한 바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
여수·상하이 손잡았다

내일 협력 양해각서 체결
中 후진티아 주식 참가

여수와 상하이가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하이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행사와 포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후진티아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는 장승우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과 조원희 코트라 사장, 중국 안지페이 대외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양승 상하이시 제1부시장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여수박람회조직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 양국의 박람회 참여 및 개최경험 교류 ▲한·중 양국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상하이박람회조직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여수 박람회 개최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이세계박람회는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삶(Better City, Better Life)'이란 주제로 열리며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looking at a globe with the text '속이 다 후련하다' (The inside is all relieved).

先州日報 광고접수안내.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s advertising department.

주유소 금매 안도읍내 6차로 상행.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gas station area.

분할합병공고. Legal notice regarding a partial merger of a company.

분묘개장공고(2차). Notice regarding the opening of a cemetery.

분할합병공고. Another legal notice regarding a partial merger.

분묘개장공고(2차). Another notice regarding the opening of a cemetery.

산행안내. A large section containing various hiking notices, including dat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groups.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executive course at Hoonam University.